

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21. 9. 3.(금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21. 8. 24. 부평구청장
나. 회 부 : 2021. 8. 24. 행정복지위원회 회부
다. 상 정 : 2021. 9. 3.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**【원안 가결】**

2. 제안설명 (요지)

가. 제안이유

-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의 보다 유연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용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고, 청소년의 정의를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르며, 현행 이용대상자의 구분(청소년과 일반인)은 삭제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정비 (안 제2조제2항, 안 제5조제2항)
- 이용대상자 구분 삭제 (안 제3조)
- 공공독서실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추가 (안 제5조제1항)
- 상위 법령명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7조제6호)
- “청소년”의 정의를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정의 규정 인용 (안 제8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요지)

- 가.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의 이용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, 청소년의 정의를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르고 현행 이용대상자를 삭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,
- 나. 제3조(이용대상자) 이용대상자를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, 제5조(이용시간 및 이용료) 후단에 “다만, 구청장이 공공독서실의 여건, 사회 재난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”는 단서를 신설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.
- 다. 제8조(운영 및 관리)제1항 중 “청소년에게”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”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외의 사항은 상위 법령명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4. 질의답변 (요약)

질문	답변
○ 조례에 이용대상자 항목이 없어졌음. 이용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된 것임. 조례에 공공독서실을 설치하는 목적을 보면 첫째 1조에 지역사회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있음.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?	○ 현재 규정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목적의 있다는 청소년에 어느정도 우선권을 주고 청소년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혜택규정도 있었고, 그래서 청소년과 청소년 외 또 마땅히 표현이없다 보니까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썼음.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굳이 청소년과 일반인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음. 조례 8조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의를 명시하였음.
○ 현재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, 코로나로 인해 운영은 어떻게 하였는지?	○ 감염병예방방법에 따른 단계별 지침이 시달될 때마다 지침에 맞춰서 운영을 하였음. 현재 4단계에서는 30%까지 운영하고 시간은 9시까지 운영하고 있음.

5. 토 론

- 김환연 위원 “원안 동의”

6. 심사결과

- 만장일치 “원안 가결”